

탈경계 항일 서사와 공동주체성의 구축

- 재중 한국 망명 문인들의 문학창작과 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

석길매* · 김병민**

〈차 례〉

1. 서론
2. 문인 교류와 공동주체성의 구축
3. 공동 서사와 공동주체성의 구축
4. 연극 창작, 합동 공연과 공동주체성의 구축
5. 결론

[국문초록]

식민지시기 재중 한국 망명 문인들의 탈경계 서사는 주체성의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 공동주체성과 관련해서는 구축과 해체, 해체와 재구축의 특이한 역사 과정 및 양상이 나타난다. 재중 한국 망명 문인들의 개체 생명 자각과 민족주체성은 공동주체성을 구축하는 근본 전제이며, 그 과정 중에서 중국의 근대 담론환경과 역사 현장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중한지사들은 모두가 반제국주의-반봉건의 역사적 사명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중 한국 망명 문인들은 중국의 '신해혁명'과 '대혁명' 시기부터 점차 중국의 혁명 지사들과 상호주체의 관계를 이루면서 공동주체성을 초보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중국의 항일전쟁 시기 한국 망명 문인들은 중국 항일투쟁의 주체가 되어 중국의 혁명 지사들과 공동주체성을 구축하였고 나아가서 정치공동체로부터 '문에 공동체'로서의 제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를 문학예술 영역에서 보면 동일한 주체의 공동 서사 및 연극의 합동 공연 등으로 표현된다. 재중 한국 망명문학에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체성은 중한

* 연변대학교 근대한국문학전공 박사과정, 연변대학교 도서관 조선훈 문헌 자료실 관원, 저자

** 연변대학교 조선언어문학 학부 석좌교수, 교신저자

운명공동체로서의 문화적 친화성과 융합성, 공존발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한국, 망명문학, 탈경계 서사, 중국 담론환경, 공동주체성

1. 서론

식민지시기 한국의 망명문학은 일제강점기 중국, 구소련, 미국 등 나라로 망명한 한국 문인들이 창작한 문학을 가리킨다. 그중에서도 재중 한국 망명문학은 기타 망명문학보다 장르가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특징을 가진다. 특히 재중 한국 망명문학의 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은 구소련이나 일본 및 미국의 한국 망명문학의 그것과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하고 확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중 한국 망명문학은 '만주국'(1932~1945)의 한국 이민 문학파도 부동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 강경애 등 진보적인 작가들을 제외하고는 주체성 면에서 일제 식민주의 담론의 영향을 받아 그 주체성은 다소 왜곡되고 지어는 자의적 혹은 타의적인 소외 현상까지 보여주고 있는바 공동주체성의 구축은 운운할 수조차 없다.

주체성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 속에서 형성하고 발전되고 상호주체성의 형성은 집단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의 구축을 결정한다. 20세기 상반기의 중국은 재중 한국 항일 문인의 반일 독립투쟁의 주전장인 동시에 생활 체험과 문학창작의 주된 '장소'¹⁾이기도 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945년의 '광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한국의 애국자들이 중국으로 망명해 반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문학 활동도 전개하였는데 유자명, 김산, 김원봉, 박효삼, 김규광, 류수인, 이두산²⁾, 이달, 문정진, 이정호, 김창만, 문명철, 이육사, 한유한³⁾, 나월한 등을 대표로 그 수가 100명 이상에 달한다. 탈식민주의 이론가

1) 여기서 '장소'는 이푸투안의 『공간과 장소』(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2007년)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2) 이두산(李鬪山), 1919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는바 선후로 『한성(韓聲)』(1930), 『동방전우(東方戰友)』(1939) 등 잡지를 창간했고 시, 산문, 보고문학, 회고록 등 70여편의 작품을 창작했다.

들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중에서 지식분자와 행동주의자들의 작용은 아주 돌출하다.”⁴⁾고 말하고 있다. 재중 한국 망명 문인들은 독립운동가인 동시에 문인이었다. 그들은 혼신의 정열로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중국에서 중국어로 신문과 잡지를 창간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고 출판함으로써 중국의 문인들과 폭넓은 교류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주체성의 구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했다.

주체성에 대한 탐구는 데카르트, 칸트, 헤겔 등 철학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해온 근대 철학의 핵심적인 문제였다. 생명의 자각을 근간으로 하고 자주, 능동, 창조를 정신적 가치로 하는 인간의 주체성은 서양 ‘근대 철학의 초석’⁵⁾이라 할 수 있으며 근대 사회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망명문학에서 ‘인간의 생명 자각’을 핵심적 가치로 하는 주체성, 민족주체성, 공동주체성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론과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여기서 ‘생명의 자각’이란 주체가 개체적 생명과 그 존재 가치를 의식함을 의미하는데 자존, 자강, 자위를 의미한다. 한국에 있어서 주체성과 민족주체성의 탐구는 계몽시대의 신채호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민족의 역사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아’는 정신적 존재이고 ‘비아’는 물질적 존재라고 하면서 ‘아’는 또 ‘대아’와 ‘소아’로 구분되는데 ‘대아’란 ‘아’의 역사에서 불후의 공적을 남긴 최영, 이순신 등을 대표로 하는 민족 영웅들의 정신이라고 했다. 여기에서의 민족 영웅들의 정신은 바로 ‘생명의 자각’을 근간으로 하는 민족주체성의 각성을 의미한다. 신채호는 민족주체성의 입장에서 전민족의 항일투쟁을 호소했다.⁶⁾ 1910년 이후, 신채호, 신규식, 박

3) 한유환(韓悠韓, 1910~1996), 본명은 한형석(韓亨錫)으로 여덟 살에 부모를 따라 중국에 왔고 상해 신화예술학원을 졸업, 선후로 中央戰時幹部訓練第四團教官, 韓國青年戰地工作隊藝術組長, 光復軍第二支隊藝術組長 등을 역임했다. 주요 작품으로 가극 <阿裏郎>, 연극 <韓國一勇士> 그리고 <國民軍歌>, <光復軍歌>, <鵬綠江進行曲> 등 다수의 가곡을 남겼다.

4) 피터·차일즈, 페트릭·윌리엄스, 김문환 옮김,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문예출판사, 2004, 42쪽.

5) 佛萊德·R·多邁爾著, 萬俊人譯, 『主體性的黃昏』,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3, 서문.

6) 신채호, 「대아와 소아」, 『단계 신채호 전집』(하), 단재기념사업회 편, 형설출판사, 1972, 84-85쪽.

은식 등 재중 문인들은 주체성과 민족주체성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였는데 신규식, 박은식 등은 민족주체성을 ‘민족의 혼’(한국혼)으로 규정하면서 민족주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행동으로 동제사(1912), 보합단(1914), 신한청년단(1917) 등 민족단체들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한 마디로 민족주체성이란 개체 생명과 민족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하는 정신을 가리킨다.

한편 한국의 망명 문인들은 중국에서 항일운동과 독립투쟁을 전개하면서 중국인들과의 협력을 도모하였고 그러한 과정에 상호주체성을 전제로 한 공동주체성을 구축해 갔는데 ‘신해혁명’(1911), ‘북벌전쟁(北伐戰爭)’(1926년) 등에 있어서 중국의 진보세력을 적극 지지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협력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중한 상호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은 일련의 취약성을 드러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중한 양국이 직면한 시대적 과업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상호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의 형성은 중한 연대를 위한 필연적인 정치적, 사상적 과제였는데 재중 한국 망명 문인들은 중한 연대의 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다양한 문필활동을 통해 그 필요성과 의미를 역설하였는데 중국의 전면 항전 시기(1931~1945)에 이르러 그 전성기에 이르렀다.

재중 한국 망명문학의 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의 연구를 통해 한국 망명문학의 사상적, 예술적 가치를 정확히 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망명문학의 성격과 특징 또한 천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한중 근현대 문학 교류사의 연구와 근대 동아시아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작업이 된다. 현재까지 국내외 학계의 재중 한국 망명문학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개별 작가 및 작품에 대한 해석에 머물러 있을 뿐 주체성, 민족주체성, 공동주체성의 구축 등 문제는 깊이 있게 살피지 못하고 있다. 재중 한국 망명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김주현의『신채호 문학 연구초』(소명출판, 2012), 『계몽과 혁명』(소명출판, 2015), 유하(劉霞)의『신규식의 중국체험과 문학창작 연구』(산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탕진(湯振)의『백암 박은식의 문단 활동과 문학창작 연구』(산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김

병민의 『신채호 문학 연구』(요녕민족출판사, 1988), 『한국 근대 망명 문인들의 문학 연구』(태학사, 2021) 등이 있고 주체성 관련 연구의 성과들로는 김병민의 「한국 망명 지식인들의 동아시아 인식과 주체성」(『민족문학사연구』, 제71호, 2019. 1) 등이 있다. 김주현, 유하, 탕진 등의 성과에서는 중국으로 망명한 한국 문인들의 창작과 그 특징을 천명하였고 김병민은 저서와 논문을 통해 재중 한국 망명 문인들의 사상과 문학에 대하여 총체적인 조명을 하고 주로 정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문인들의 주체성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외에도 역사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들이 적지 않다. 이런 논문들은 한중연대 혹은 국제연대에 대하여 논의했지만 주체성, 공동주체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7)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다양한 성과들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 문인들의 상호주체성, 공동주체성에 대한 고찰은 아직 미비한 편이다. 재중망명문학에 대한 주체성과 공동주체성에 대한 탐구는 20세기 전반기 한중연대로 특징되는 아세아의 정신적 가치발견에 아주 의미있는 과제이며 나아가서 21세기 한중인문교류 나아가서 동아시아문화공동체 구축에도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계승을 줄 수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항일전쟁 시기 재중 한국 망명문학에 체현된 상호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의 형성 과정과 그 특징을 고찰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개체의 생명 자각과 주체성, 민족주체성, 공동주체성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개체의 생명 자각이 민족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의 구축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도록 한다. 둘째, 중국의 담론 환경과 역사 현상이 재중 한국 망명 문학의 주체성, 공동주체성 구축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셋째, 한중 양국 문인들의 공동주체성과 문학예술공동체의 구축 과정을 살피면서 양국 문인들의 교류, 문학 활동, 문예 활동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양국 문인들이 공동주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에 정치공동체로부터 문예(文藝)공동체로 전환되고 있음을 천명하고자 한다.

7) 최기영, 「이두산의 재중독립운동」, 『한국근대사연구』 42, 122-150쪽; 조은경, 「“동방전우”를 통해 본 이두산의 국제연대 인식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2010, 12.

2. 문인 교류와 공동주체성의 구축

재중 한국 망명 문인들의 개인 주체성, 민족주체성의 부단한 발전은 상호 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의 구축에 있어서 주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사회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교류하는 데 있다. 부동한 주체는 교류 과정에 상호이해와 상호영향을 통하여 공통한 인지와 정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른바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y)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상호주체성은 주체성의 의미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상호인식과 상호영향이라는 상호작용의 기본적인 특징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상호주체성은 특정된 주체성으로서 주체성과 마찬가지로 객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거나 혹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배경으로 한다. 상호주체성을 이루는 두 주체가 동일한 객체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 ‘공동주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공동주체의 주체성이 곧 공동주체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주체성은 주체성과 상호주체성의 통일”⁸⁾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주체성에서의 주체는 비단 객체를 상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주체성(개체 주체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타 주체와도 상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상호주체성을 갖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체성의 이념 아래 주체들은 복합적인 관계를 이루며 공존, 공생한다. 상호주체성은 공동주체성을 형성하는 전제로 되며 공동주체성은 상호주체성의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다. 재중 한국 망명 문인들의 상호주체와 공동주체성의 구축은 중국 항일전쟁의 전면적인 전개와 더불어 실질적인 발전을 이뤘는바 광범위한 교류와 실천을 통해 문예 영역에서의 상호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먼저, 재중 한국 망명 문인들은 공동주체를 이뤄 중국의 항일전쟁에 참가하였다.

재중 한국 망명 문인들은 부동한 이념을 가진 다양한 단체에 귀속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동일한 객체 — 일본 제국주의와 첨예한 대립 관계를 형성하

8) 郭湛, 『主體性哲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1, 214쪽.

고 있었다. 따라서 객체로부터 오는 압력이 커질수록 내부적으로 상호주체와 공동주체성을 구축해야 했고 외부 주체인 중국의 항일 세력들과 상호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을 구축함으로써 역량의 강화를 도모해야 했다. 1937년 7월, 중국의 전면적 항일전쟁의 개시는 한국 망명 문인들로 하여금 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였다. 그들은 중국의 항일전쟁은 한국의 독립투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일제를 타도하는 것은 중국의 해방과 한국의 독립 모두에 직결된 중차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중국의 한국 망명 문인과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연합하여 또 하나의 주체를 이뤄 중국 항일전쟁에 적극 참여했는데 1937년 12월 남경(南京)에서 결성된 조선 민족전선연맹이 대표적이다. 이 연맹은 창립 과정에 중국 측의 큰 지지를 받았다.⁹⁾ 연맹이 결성된 뒤 항일무장의 창설 방안이 제출되었고 1938년 10월 국민군(國民軍) 군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무한(武漢)에서 조선인 항일부대인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다. 그 뒤 1939년 10월 중경(重慶)에서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青年戰地工作隊)'가 결성되었고 1940년에는 중경에서 상해 임시정부에 의해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국민당 통제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항일무장은 최전선에서 중국의 항일부대와 협력하여 대적(對敵) 선전, 민중 교육, 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특기해야 할 것은 한국인 항일무장이 창설되는 과정에 중국 측에서는 군사 인재의 양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1937년에 국민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 성자 분교에 개설된 한국인 '특설반(特設班)'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반에서는 선후 102명의 학원을 양성하였다. 아울러 한국인들의 무장투쟁을 돕기 위하여 군관학교에는 중국인 '특설반'을 개설하였는데 이들은 일상적인 교과목 외에 한국어 과목을 설치하여 졸업 후 한국인 부대에 파견되었을 때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 국민혁명군 제10전구(戰區)에서는 1939년 서안(西安)에서 '한국 청년 훈련반'을 개설하여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군사교육을 실시하였

9) 柳湜, 『朝鮮民族戰線萬歲』, 『全民週刊』 제1권 제3호. 저자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성립과 『조선 민족전선』 창간을 대폭 지지했다. 『朝鮮民族戰線』 創刊號, 1938.5월, 2쪽.

다. 1942년 5월, '팔로군'의 지도하에 복상을 선택한 '조선의용대'는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었다. 같은 해, '팔로군' 본부에서는 '화북조선혁명군정학교(華北朝鮮革命軍政學校)'를 설립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군사교육과 정치교육을 진행하였다. 한편 '만주' 즉 동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항일부대들은 1937년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에 편입되어 항전을 전개하였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망명자들은 내적으로 이러저러한 이념적 차이 내지는 대립이 존재하였지만 '항일'과 '구국'이라는 이념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내적으로 통일과 단결이 가능했고 외적으로 중국의 항일세력과의 연대가 가능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한국의 민족 해방 선봉대이자 중국 항전의 '국제 종대(縱隊)'¹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유자명¹¹⁾, 김원봉¹²⁾, 김규광¹³⁾, 이두산 등¹⁴⁾ 한국 문인들은 잇달아 글을 발표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의 적인 일제의 침략에 협력하고 단결하여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것을 호소하였다. 김규광은 "중국의 항일전쟁이 한창일 때 역시 일제의 수탈과 억압을 당했던 중한 두 민족의 반일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필연적인 일이었다. 때문에 전면적 항일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중한 인사들이 이 문제에 깊은 주의를 기울인 동시에 억압받는 인민들의 연합전선이 하루빨리 성립되기를 열렬히 바랐다. 이는 공허한 정치적 호소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투쟁해야 하는 전투 동맹이다"¹⁵⁾라고 지적했다. 이 글에서 저자는 한중 연합전선(聯合戰線) 수립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명시하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의 성격과 의미를 천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전투동맹'

10) 馬義, 「戰鬪中の朝鮮義勇隊」, 『國訊』 253-254호 합간, 1940년 11월 15일.

11) 유자명은 항일전쟁시기 「조선민족전선연맹결성경과」(『조선민족전선』 창간호, 1938. 4. 10.), 「국민당대회의 역사적의의」(『조선민족전선』 제2기, 1938. 4. 25.), 「태아장전승리의 의의」, 『조선민족전선』 제2기, 1938. 4. 25.) 등 다수의 정론과 수필을 발표했다.

12) 김원봉은 항일전쟁시기 「신형세와 신임무」(『조선의용대』 제41기, 1941. 1. 1.), 「일체반일역량을 단결하자」(『조선의용대통신』 제37기, 1940. 1) 등 다수의 정론을 발표했다.

13) 김규광은 「조선민족반일혁명총역량문제」(『朝鮮民族戰線』 제5-6기, 1938. 12), 「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건립해야하는가?」(『조선민족전선』 창간호, 1938. 4. 10.) 등을 발표했다.

14) 이두산은 「7.7과 중국의 부흥운동」(『동방전우』 제10기, 1939. 7), 「동아평화와 각 민족의 사명」(『동방전우』 제11기, 1939. 10) 등 다수의 정론을 발표했다.

15) 金奎光, 「朝鮮民族反日革命總力量問題」, 『朝鮮民族戰線』 제5-6기, 1938년 12월, 3쪽.

이었다. 사실 항일전쟁이 시작된 직후 중국 각계에서는 이미 한국의 비롯한 주변 각국 인민들의 연대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¹⁶⁾ 또 주환장(朱煥章), 심균유(沈鈞儒), 호유지(胡愈之), 범장강(範長江) 등 문인들이 한국인들의 간행물에 직접 글을 발표하여 중국의 항일투쟁에 있어서 한국 망명 혁명가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한중 양국의 협력과 단결을 호소하였다.¹⁷⁾ 이전의 ‘신해혁명’, ‘북벌전쟁’, ‘남창기의(南昌起義)’, ‘광주기의(廣州起義)’ 그리고 ‘만리장정(萬里長征)’ 때의 한국 망명 지식들은 개인의 신분으로 참여하였지만 전면적인 항일전쟁이 시작된 뒤의 한국 애국지식들은 집단적인 신분으로 참여하였는바 공동체 의식이 강해 피차 공동주체성을 형성하는 데 보다 더 유리하였다. 이렇게 한중 양국의 항일무장은 상호주체의 관계를 이뤄 공동주체성을 함께 구축하는 참신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재중 한국 망명 문인들은 중국어로 잡지를 창간하여 한중 협력과 항일투쟁을 널리 선전하였다.

항전 시기 한국의 망명 문인들이 창간한 중국어 잡지로는 『조선민족전선』(1938.12), 『조선의용대통신』(1939.1), 『한국청년』(1940.5), 『동방전우』(1939.1), 『광복』(1940), 『한민』(1940)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잡지들이 창간되는 과정에 중국 측 인사들은 원고 제공, 편집과 발행 등 방면에서 대폭적인 지지를 제공하였다. 일례로 『조선의용대통신』 편집부에는 원고 번역과 편집 등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문인 약간 명이 상주해있었고 이들은 또 정론, 르포 등 작품을 직접 창작하기도 하였다. 조선의용대 창설 1주년을 맞아 기획, 발간된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와 「중국 전장에서 조선의용대」

16) 일례로 중국공산당이 1937년 8월 25일 발표한 ‘중국공산당 항일 구국 10대 강령(中國共產黨抗日救國十大綱領)’의 제5조에 보면 조선, 타이완, 일본 내부의 노동대중의 연합을 ‘항일외교정책’으로 명시하고 있다.

17) 朱煥章, 「伟大的友情」, 『朝鮮義勇隊通訊』第38期, 1940년 11월 15일.

沈鈞儒, 「中韩民族携手并进」, 『朝鮮義勇隊通訊』第6期, 1939.3.

胡愈之, 「第二次帝國主義世界大戰与全世界被壓迫民族解放運動」, 『朝鮮義勇隊通訊』第31期, 1940.

範長江, 「日本对朝鮮的苦悶」, 『東方戰友』第11-12期, 1939.10.30.

등 르포 총간은 당시 조선의용대 본부에서 근무하던 중국 측 인사 유금용(劉金墉)과 왕계현(王繼賢)이 번역과 편집을 맡았다. 또 『동방전우』의 사장은 한국인 이두산, 편집은 중국인 진청, 왕효연¹⁸⁾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밖에 심균유, 호유지, 목목천(穆木天), 범장강(範長江), 황약면(黃藥眠) 등 중국 문인들이 재중 한국 망명 문인들이 창간한 잡지에 한중 항일 연대 등 주제의 정론, 시, 산문, 르포 등 작품을 발표하였고 다수의 중국 문인들이 표지 디자인, 홍보 팸플릿 제작, 삽화 제작 등 실무에 참여하였다.¹⁹⁾ 아울러 중국 각계 유지들이 잡지를 격려하기 위해 휘호를 하거나 간행경비를 의연²⁰⁾하고 잡지의 발행, 원고 조달 및 광고 협찬 등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²¹⁾ 인력, 물력 모두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던 재중 한국 망명 문인들이 자기들만의 힘으로 중국어 잡지를 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바 『조선의용대통신』이나 『동방전우』 등의 잡지는 한중 양국 문인들의 협업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협력을 통하여 양국 문인들 사이에는 상호주체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공동한 객체인 일본제국주의의 위협에 함께 대항하면서 항일운동 중의 공동주체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3. 공동 서사와 공동주체성의 구축

항일전쟁 시기 한중 양국 문인들은 중국의 전면항전노선과 세계 반과소투쟁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중심내용으로 지식 담론, 즉 항일 담론, 민족 담론, 혁명 담론을 구성하는 데 주력하였고 보고문학 장르를 이용하여 일련의

18) “陳情，創辦伊始擔任編輯，兼任廣西學生軍政治指導員。”(『東方戰友』 제8기, 1939년 5월 1일)

19) 『조선의용대통신』의 표지에 실린 다수의 관화는 중국 문인 이신(易新)의 작품이고 『한국청년』의 표지 그림은 중국 문인 사청취안(沙清泉), 삽화는 관리(範裏)의 작품이었다.

20) 『동방전우』 제6기의 ‘중요 소식’에는 “광시항업연합영업사에서는 3월부터 달마다 국폐로 기부금 100원씩 보내기로 했다. 이에 감사를 드린다. (廣西航業聯合營業社，自三月份起按月捐助國幣一百元，特此鳴謝.)”라는 기사가 실려있다. (『東方戰友』 제6기, 1939년 4월 1일, 19쪽)

21) 『東方戰友』의 발행은 『救亡日報』, 『國民日報』의 광고 도움을 받았으며 중국 각지의 인사들도 원고정탁, 발간 등을 도와주었다. (信箱, 『東方戰友』 제6기, 1939년 4월 1일, 9-13쪽)

영웅 이미지를 부각하여 전선의 군인들을 격려하였다. 양국 문인들이 동일 주제에 대한 공동 서사는 대부분 한국 망명 문인들이 간행한 잡지에 발표되었지만 적지 않은 작품은 중국 잡지에도 발표되어 중국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유금용이 편역한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1939.3)와 왕계현이 편역한 「중국 전장에서 조선의용대」(1939.3)가 있다. 두 작품집에는 조선의용대의 전선 선전원이 창작한 보고문학 작품이 실렸는데 조선의용대 전사들이 대적 선전, 민중교육, 전선 구호(救護) 등 방면에서 보여준 두려움 없는 혁명적 영웅주의 정신과 국제주의 정신 그리고 한중 양국 항일 투사들의 피로 맺어진 전투적 우의를 담아내고 있다. 이밖에 한중 양국 문인들이 창작한 보고문학 작품이 100여 편 있는데²²⁾ 이들 작품은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고 시대적 가치를 고양하는 데 중요한 텍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가 작품으로는 중국 시인 역양(力揚)의 「조선의용대」, 목목천의 「조선 이두산 동지에게 드림」, 「조선의 전우들에게」, 심지정(沈芷靜)의 「우리는 영원히 손을 맞잡고 — 조선의용군 동지들에게」, 뇌석유(雷石榆)의 「친구여, 가소서 — 조선의용대 오민성 동지에게 드림」, 애청(艾靑)의 「추도사 — 조선독립동맹의 순교한 조선 열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음」, 「조선의 전우들에게」 등이 있고 한국인의 작품으로 이두산의 「너는 의용의 전사」, 「1940년 행진곡」, 「방가」, 「나는 한 필의 말이다」, 문정진(文靖珍)의 「네 명의 장병들을 애도함」, 문명철(文明哲)의 「중국의 아들딸」, 김유(金維)의 「양자강」, 장중광(張重光)의 「8·29」, 약희(若曦)의 「나는 금강산으로 돌아가련다」 등이 있다. 이들 작품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는 첫째, 한중 양국이 연대하여 일제를 타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주제를 선전하는 한편 한국의 독립을 실천할 데 대한 확고한 신념을 찬양하고 있다. 둘째, 중국에 항일투쟁에 있어

22) 중국 문인들의 보고문학 작품으로 劉金庸의 「良辰美景過佳客」, 「一群小鬥士的集會」, 「江南火線上」, 王繼賢의 「新同志在前線」, 「朝鮮義勇隊在桂林」, 蕭三的 「幾個小故事」, 陳元仲의 「中韓聯合戰線與朝鮮義勇隊」, 「戰鬥在前線及敵後的朝鮮義勇隊」 등이 있고 한국 문인의 작품으로 박효삼(朴孝三)의 「第一區隊在前方」, 문정일(文正一)의 「活躍在平漢路上的第三區隊」, 장중광(張重光)의 「夜襲」, 윤세주(尹世冑)의 「和平村通信」 등이 있다.

서 한국 투사들의 영웅적 형상을 부각하고 찬미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중 양국의 문인들은 시를 통해 공공의 적인 일제와 공통한 목표인 항일전쟁의 승리를 확인하고 투쟁 중에 상호주체의 관계를 형성하고 문학공동체를 결성하고 발전시켜온 역사의 현장을 재확인할 수 있다.

아래 대표적인 텍스트를 통해 공동주체성의 구축과 그 의미를 고찰해보도록 하자. 먼저, 한중 항일연대의 시대적 의미를 구가하고 항전 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체현한 작품으로 이두산의 시를 볼 수 있다. 이두산은 1939년 1월 『동방전우』를 창간하고 사장에 취임하였고 아울러 『조선의용대통신』의 편집실 주임을 겸임하였다. 그는 항전시기 무려 70여 편의 시가, 산문, 정론, 전기 등²³⁾을 발표했는데 한국망명문인가운데서는 가장 대표적인 작가였다. 당시 이두산은 자신의 문학작품을 통하여 일제의 한국과 대륙침략을 호되게 비판했고 중국 항일전쟁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표현하였다. 이두산의 항일 문예 사상은 재중 한국 망명 문인들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는 시중 진보적인 항일문예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문학창작은 “민족혁명의 항일문예 전선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²⁴⁾ 봉사해야 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경향을 경계해야 한다.”²⁵⁾고 주장하였다. 그의 문학 활동은 한중 양국 문인들의 문학적, 정신적 대화와 공동주체성의 구축 및 그 특징을 잘 구현하고 있다. 「1940년 행진곡」²⁶⁾에서 이두산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23) 李鬮山(1896-?)은 1919년 중국에 망명하여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한국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했고 증문 간행물인 『한성』의 주필, 『東方戰友』사의 사장, 『조선의용대통신』의 편집실주임을 역임했다. 李鬮山이 창작한 시가작품으로 「你是義勇的戰士」(《朝鮮義勇隊通訊》, 1939), 「1940年進行曲」(《東方戰友》, 1940), 「你又來了」(1939) 「新年獻詞」(《東方戰友》, 1940), 「放歌」(《中國詩壇》, 1940), 「動吧 - 中國」(1939) 「母親的墓碑」(《東方戰友》, 1939) 등 있으며 가사작품으로 「先鋒隊歌」(1939), 「韓國進行曲」(1940), 「光復軍歌」(1942) 등이 있다. 수필작품으로 「離開陷落了的廣州」(《東方戰友》第1期), 「友與敵」(《東方戰友》第2期), 「給火線上的同志」(《東方戰友》第3期), 「紀念“黃花節”更努力的打擊敵人」(《東方戰友》第6期), 「儀俠的人們喲, 還踱步在裏那!」(《東方戰友》第8期), 「三月的春」(《東方戰友》第15期), 「打到鴨綠江岸, 革到玄海灘邊」(《東方戰友》第15期), 「非打殺這一雙野狗遠東永無寧日」(《東方戰友》第20期), 「躍在火線上的朝鮮義勇隊」(《朝鮮義勇隊通信》第15期), 「新廣西」(《三民主義》月刊, 第4卷, 第4期, 6期, 第5卷, 第1, 2期)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증문과 영문으로 된 정론작품이 있다.

24) 李鬮山, 「洪流中的文藝家」, 『東方戰友』31, 1941年8月, 11쪽.

25) 위의 책, 11쪽.

26) 李鬮山, 「1940年進行曲」, 『東方戰友』13, 1941年10月, 3-4쪽.

노구교 부근에서 울린 총소리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중한 형제들이여
총대를 메고 큰 발걸음 내디디며 앞으로 전진!
한 봉우리, 또 한 봉우리 뚫아 오르자.
오늘날
네 해가 지나는 봉우리에 서서
'해방'의 깃발을 높이 들고 북소리를 울리며
여전히 높은 목소리로 장엄한 행진곡을 부르는구나.²⁷⁾

시의 전반부에서는 한중 양국의 전사들이 “항일 구국, 전면 항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어깨를 견고 싸우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어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우리는 완전한 조선을 원한다.
우리는 완전한 중국을 원한다.
...
우리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원한다.
우리의 가옥, 옥답을
마땅히 돌려받아 우리의 소유로 해야 한다.
네 해가 지나는 봉우리에 서서
힘찬 질풍처럼
다 함께 돌격하자.
보라,

27) 원문: 自从卢沟桥畔炮一声/不愿意做奴隶的人们/中、韩的弟兄们/扛着枪, 大踏步, 前进进! / 爬过一岭, 二岭, 三岭/如今/站在四个年头的岭上/高揭“解放”旌旗, 大鼓战鼓/仍然高唱着庄严的进行曲呀

‘희망봉’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

노래하라 이 1940년의 행진곡을

현해탄을 향해 노래 부르자,

해남도를 향해 노래 부르자,

대동세계를 향해 노래 부르자!²⁸⁾

시의 전반을 관통하는 주체는 ‘나’가 아닌 ‘우리’ 즉 복수형으로 사르트르가 지적한 ‘공동존재’이다. 시에서는 ‘우리’의 전투, ‘우리’의 목표, ‘우리’의 승리 등 시구를 통해 한중 양국의 항일투사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병진하고 있는 공동주체임을 강조하면서 “함께 돌격”해야 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두산은 당시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네 가지 언어에 모두 능해 라디오 연설도 많이 발표하고 전한(田漢), 하연(夏衍), 목목천(穆木天) 등 중국의 항일 문인들과 널리 교류하면서 당시 중국의 항전 문예의 중심인 계림(桂林)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두산의 시 「방가(放歌)」²⁹⁾는 목목천³⁰⁾의 「조선 전우 이두산 선생에게 드림」³¹⁾과 함께 『중국시단(中國詩壇)』 잡지에 나란히 발표되었는데 목목천의 추천에 의한 발표로 추측된다. 「조선 전우 이두산 선생에게 드림」이라는 시에서 목목천은 중한 항일 연합전선을 위해 바친 이두산의 노력과 헌신을 치하하고 양국 항일 투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였다. 역시 한중 공동주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다.

28) 원문: 我們要完好的朝鮮/我們要整個的中國/……/我們要東亞的和平/……土地、田園/應該收回, 做我們的所有/從這四個年頭的嶺上/更要疾風似的/齊奔沖進。/看啊, /那“希望峰”招展着我們呢/高唱吧, 這一九四零年的行進曲/高唱到玄海灘那邊/高唱到海南島那邊/高唱到大同世界那邊吧!

29) 李鬪山, 「放歌」, 『中國詩壇』 6, 1940年12月5日.

30) 穆木天(1900.3.26-1971.10), 중국현대 시인이며, 번역가이다. 아울러 상징파시인의 대표인물이다. 그는 좌익시인으로 재중 한국독립투사들의 항일투쟁과 문단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었는데 선후로 시 「조선 전우들에게 드림」(獻給朝鮮戰友們, 1938), 「조선 전우 이두산 선생에게 드림」(贈給朝鮮戰友李鬪山先生, 1940) 등을 발표했으며 1940년 계림에서 재중 한국망명문인들과 다양한 교류관계를 가지었다.

31) 상기 시는 처음 『東方戰友』(第23期, 1940年11月15日)에 발표된 데 이어 桂林의 『中國詩壇』(제6기, 1940年12月5日) 발표되었다.

폭풍우 속에서,
 나는 그대의 격앙된 거문고 소리를 들었노라.
 새벽녘에
 나는 그대의 높은 노래 소리를 들었노라
 그대는 불타는 뜨거운 마음을 지녔고
 그대는 광명을 되찾으려는 굳은 의지를 지녔구나.
 친구여,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것 같구나
 그대의 마음속에서 출렁이는 압록강의 푸른 물결이.³²⁾

시의 마지막 연에서 시인은 한중 양국의 투사들이 일치단결하여 항일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을 호소하였다.

친구여,
 우리는 손에 손을 꼭 잡고 싸워야 한다
 우리들의 위치에서
 동방 각 민족 전우들이여
 무언으로, 혹은 높은 소리로
 더 뜨겁게 손잡아야 할 것을 호소하노라!³³⁾

위의 시에서의 ‘우리’는 이두산의 시에서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같은 전호 속의 동지이며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이다. 모든 ‘공동체’는 ‘너’와 ‘나’로 이루어진다. 시에서의 ‘너’와 ‘나’는 ‘연합 항일’의 확고한 ‘수단’과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있는 ‘정치공동체’로서 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은 그 사상적 기반이었다.

32) 원문: 在暴风雨中, /我听见了你的琴声激扬, /在黎明中, /我听说过你引吭高唱, /你怀着一颗火热的心, /你坚定着争取光明的意念, /朋友, /我好像看见, /鸭绿江的水在你心中动荡!

33) 원문: 朋友, /我们要紧紧地握手战斗呀! /在我们的岗位上, /东方各民族的战友们, /无言地或者是高歌地, /是要更热烈地握手的!

다음으로 한국 항일 투사들을 소재로 한 시를 통해 공동주체성에 기초한 조선의용대 용사들의 영웅주의와 국제주의 나아가서 한중연대를 노래하고 있다. 상호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은 철학적인 범주로서 국제주의, 국제연대의 정신사상적 기초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주의, 국제연대는 상호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의 존재형태로서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상호주체성, 나아가서 공동주체성의 연구를 떠날 수가 없다. 1941년 11월, 하북성(河北省) 형태(邢台) 지역의 반 소탕 전투에서 조선의용대 대원 네 명이 희생되었는데 조선의용대에서는 ‘국민군’과 ‘팔로군’ 양측의 성원 아래 태항산(1941년 11월)과 중경(1942년 4월)에서 성대한 추도회를 거행하였다. 추도회에 참석한 중국 측 간부들은 중한 연합 항일의 장거와 조선의용대 영웅들이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웅적 기개를 높이 찬양하였다. ‘팔로군’ 총사령관 주덕(朱德)은 「자유를 위해 희생하고 생명은 영원하리라」라는 제목의 추모문장에서 “우리의 열 명³⁴⁾ 조선 혁명동지들이 희생했다. 그들은 중국의 민족해방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생전에 화북의 군민들과 힘을 합쳐 송고한 국제주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자유를 위해 죽은 전사들, 그들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며 그들의 전투 정신은 자유를 쟁취하는 중국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³⁵⁾라고 썼다. 국민당 지역인 중경에서도 성대한 추도회가 거행되었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여 조문하였다. 『조선의용대 통신』(1942년 4월 1일)에는 ‘전선에서 희생된 조선의용대 동지들 추모 특집’을 간행하였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신화일보(新華日報)』(1942년 9월 20일 자)에서도 ‘조선의용군 동지들의 희생 추모 특집호’를 발간하여 주덕, 엽검영(葉劍英) 등 ‘팔로군’ 고위 지도자들의 추도사 외에 「항전 중 중국에서 희생된 조선동지들을 기리며」, 「중국에서의 희생」,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 희생된 동지들의 약력」 등 추모문장을 게재하였다.

한편 조선의용대의 대원 문정진과 중국 시인 애청은 각각 추도시를 발표

34) 주덕의 추도사에서 언급한 열 명은 ‘형태전투’ 이전의 여러 전투에서 희생된 조선의용대 대원 전체를 가리킨다.

35) 주덕, 「자유를 위해 희생하고 생명은 영원하리」, 『해방일보』, 1942년 9월 20일.

하였는데 이 두 작품은 항일투쟁이라는 동일한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창작된 한중 양국 문학의 상호 서사의 대표적인 작품인바 양국 문인들의 상호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의 구축을 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정진은 「네 명의 장사들을 애도함」³⁶⁾에서 희생된 열사들은 “불처럼 타고르는 열정”을 동지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저 멀리

황막한 북쪽 전장을 바라보며

순국한 네 명의 장사에게 경례를 드린다!

...

장병들이여

그대들은 영광스럽게 희생되었다.

그대들은 승리의 미소로

원수들을 향해 마지막 탄환을 쏘았다.

장병들이여

그대들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면서

불처럼 타고르는 열정을

해방을 위해 일하는 동지들에게 보내주었다.³⁷⁾

또한 시인은 중국의 광활한 대지에서 항일전쟁의 승리를 위해, 민족의 독립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바쳐 싸운 그들의 영웅적 기개를 소

36) 문정진(文靜珍), 朝鮮義勇隊隊員으로, 南京大學을 졸업했고, 가극 『阿裏郎』을 창작하여 조선의 용대가 『아리랑』과 함께 계림에서 공연했고 태항산전투에서 희생된 용대용사들을 기념하여 시 「悼四將士」를 창작하여 『朝鮮義勇隊』(제42기, 1942년 4월)에 발표했다. 시에서 언급된 신태이전역에서 희생된 네명의 열사는 손일봉, 왕현순, 주동욱, 최철호 등을 가리킨다. 이외에도 태항산에서 희생된 열사들로는 윤세주 등이 있다.

37) 원문: “我遙望, /荒涼的北戰場, /向四位殉國的將士敬禮。/……/將士們, /你們是光榮的逝世了, /你們以勝利的微笑/向仇敵射發了最後的一粒子彈。/將士們/你們纵然永別我們而去/却將火樣的燃燒的熱情/獻寄給為解放而工作的同志們。”

리 높게 구가하였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어느 비밀스런 야밤에
그대들은 상해에서 적 요주의 인물을 암살했고
나는 지도자의 책임을 짊어졌다.
그대들은 뜨거운 주먹을 휘두르며
죄인들을 향해 맹공격을 퍼부었다.
순찰을 하던 놈들은 그대들의 위풍에 놀려
경황실색하며 숨어들었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또 하루의 무더운 여름
그대들은 모 사단의 결사대와 함께
대오의 맨 앞에 서서
석산을 공격하여
전리품을 획득하고
승리하여 돌아왔다

오늘날
그대들의 장렬한 희생으로
형태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꾸어 왔구나!
그대들의 위대한 혁명정신은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그대들의 영전 앞에서
우리는 선언 한다.
그대들이 남긴 유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대들의 핏자국을 밟으며 앞으로 전진 하리라!³⁸⁾

문정진은 사실주의적인 시가 기법으로 열사들의 투쟁행적을 회고하면서 상해에서의 의열단 투쟁, 국민군 결사대와 함께 싸운 의용대의 석산공격전 등을 통하여 한민족의 독립투쟁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항일 전쟁의 주체로서의 한국 용사들의 영웅적 업적을 노래하고 있다. 문정진의 시작품과는 달리 애청³⁹⁾은 「추도사」⁴⁰⁾에서 조선의용대의 희생된 용사들을 노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시적 이미지의 창출을 통하여 주제를 심화, 확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형제와 같은 조선인민들이 일제의 억압 아래에서 겪은 고난을 표현하고 조선의용대의 영웅적 기개를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항일 전장에서 희생된 모든 한국 열사들의 항일투쟁정신과 공동주체성에 기초한 영웅주의와 국제주의 정신을 노래하고 있는바 이는 재중 한국 무장대오의 항전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인칭 글쓰기를 통하여 시인의 정감을 더욱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리랑 노랫소리

화남에서 화북까지,

우리의 발자국은

중국의 전장을 가로질렀다.

함께 싸우던 동지들이 죽었다.

몇몇은 상해에서 지하공작원에서 죽었고,

38) 원문: “记得/一个秘密的夜里/你们在上海暗杀敌之要人/我担负着向导的责任./你们挥舞着狂热的拳头/竟向那罪魁猛击/那些零星的巡捕一见你们威风凛凛的姿势/便不能不惊慌失色地躲在一边! /..... /记得/又一个酷热的夏天, /你们与某师敢死队, /站在队伍的最前面/攻击锡山/夺获战利品, /胜利归来./ /如今/以你们壮烈的牺牲, /换取了那台光荣的胜利! /你们伟大的革命精神当永垂千古! /在你们的灵前/我们宣誓: /为完成你们的遗业, /踏上你们的血迹前进!”

39) 艾青(1910.3.27.-1996.5.5), 원명은 장정함(張正涵), 중국의 저명한 현대시인으로 「大堰河-我的保姆」는 해방전 그의 대표적 시작품이다. 해방전 대표적 시집으로 『대안하』(大堰河, 1935) 등이 있다. 그는 재중 한국 독립투사들의 항일활동과 문학활동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는데 1939년 3월1일 계림에서 공연되었던 조선의용대 연극 『조선의 딸』의 사실주의 특성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바가 있다. (『感言』 『救亡日報』, 1939.3.3.)

40) 艾青, 「悼詞-為朝鮮獨立同盟追悼殉難的朝鮮烈士們而作」, 延安, 『解放日報』, 1942年9月20日.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전선에서 죽었다.

적들과의 육탄전에서 죽었고,

굴복하지 않는 반항 속에서 죽었다.

더더욱

벼랑 끝에서 적과 싸우면서도

가슴을 열고 당당히 적들의 칼을 받아 안았다.

그대들의 용감한 희생은,

이미 조국 조선의 치욕을 다 씻었다.⁴¹⁾

이 시인은 친근하고 진지한 필치로 희생된 조선의용대 용사들을 추모하고 있다. “친애하는 전우들이여/안심하소서!/자유를 위해 싸우는 중국 땅에서/햇살과 구름의 그림자는 그대들의 무덤을 어루만지고 있소.//…우리는 그대들의 이름을 기치로/그대들을 위해 복수하겠소./적을 섬멸하러 가겠소./조국 조선을 해방하러 가겠소.”⁴²⁾ 여기에서 “그대들의 이름을 기치로” “해방하러 가겠소.”는 가장 장엄한 어조로 외치는 영원한 추모이다. 하지만 시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열사들의 유지를 받들어 투쟁을 견지할 뿐만 아니라, 조국의 해방된 이후에도 영원히 열사를 기려야 한다 하였다. “해방된 조국의 땅에/기념탑을 세우자—장엄한 기념탑을/승리의 기념탑을/이 탑이 삼각산처럼 하늘에 높이 솟아/ 자유로운 조국의 후손들이/날마다 경의를 드릴 것이다.”⁴³⁾ 그만큼 애청은 조선항전열사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고난, 전투, 수난, 승리, 기념 등 다양한 시적 이미지를 통해 진지하게 표현하

41) 원문: “阿里郎의歌声/从华南唱到华北,/我们的足迹/踏遍中国的战场。/…… /一起战斗的同志们死了, /有的死在上海的地下工作里, /有的死在后方的病院里, /而更多的却死在火线上。……/死在和敌人的肉搏里, /死在临危不屈的反抗里。/更有的是/刺死了敌人之后退却在悬崖边, /打开了胸膛, 让敌人刺死。/你们的勇敢牺牲, /已洗尽了祖国朝鲜的耻辱”。

42) 원문: “亲爱的战友们/请安心吧! /在为自由而战斗的中国的土地上/阳光与云影抚拂着你们的坟墓/ /……我们将以你们的名字为旗帜/去为你们复仇/去歼灭敌人/去为祖国朝鲜争取解放”。

43) 원문: “在祖国解放的土地上/将竖立纪念塔。……庄严的塔/胜利的塔/将像三角山一样高耸在天空/让祖国的自由的子子孙孙/日日致敬与瞻养”。

였다. 따라서 시가에서는 한중양국지사들의 상호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을 인지하는 시인의 정서세계가 진지하게 표출되어 있다. 문정진의 시가 군인적인 호방함과 걱정을 보여주면서도 상대적으로 직설적이고 단조로운 면이 있다면 애칭의 시는 시적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를 창조하는 뛰어난 기교를 보여주면서 진지한 정서를 표출하는 등의 특색도 보여준다. 분명한 것은, 시인 애칭의 창작을 통해 한국 항일 투사의 형상은 더욱 풍만하고 아름다워졌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정치공동체’ 나아가서 ‘문학공동체’로서의 한중 항일 문학이 상호영향과 보완 속에서 발전하고 승화되었음을 체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중한 양국의 작가들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공동 서사의 고찰을 통하여 한국의 망명문학에서 나타나는 상호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의 정당성과 그 특징을 한층 더 깊이 인지할 수 있다. 상호주체성을 구축할 때, 주체와 주체 사이의 ‘매개’, 그리고 ‘균형, 평등’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매개는 주체와 주체가 함께 상대하는 객체인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객체를 상대할 때의 동일한 입장과 태도이다. 그리고 주체와 주체 사이의 ‘균형, 평등’의 원칙은 항전의 승리를 위해 함께 치러야 할 대가를 강조하고 있다. 즉 함께 싸우면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양국 항일 지사들의 공동주체성의 구축은 이들이 상대하는 ‘타자’ — 일제를 마주할 때의 공동의 입장, 태도, 목표와 공동의 희생이 전제조건이었다. 따라서 항일전쟁 시기의 한국 망명문학이 보여주는 상호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은 아주 높이 평가될 수 있는바 매우 확고하고 투철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다.

4. 연극 창작, 합동 공연과 공동주체성의 구축

재중 한국 항일 망명 문인들은 연극의 창작과 공연을 중시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첫째, 극예술이 대중성이 강해 민중을 상대로 항일 교양 활동을 진행하기에 적합하고, 둘째는 당시 중국의 문예계에서 한국의 항일활동을

을 소재로 한 연극이 많이 공연되어 중국의 민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되는바 한국의 망명 문인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연극 활동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안중근, 윤봉길⁴⁴⁾ 등 한국의 항일 영웅 그리고 한민족의 수난과 반일 투쟁을 소재로 한 연극작품들이 많이 공연되어 중국 민중의 항일의식을 고양하고 한국의 반일 독립투쟁을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의용대’에서 창작, 공연한 연극으로는 『두만강변』(1938), 『철』(1938), 『망명』(1939), 『반격』(1939), 『조선의 딸』(김창만, 1939), 『아리랑』(가극, 문정진, 1939) 등이 있고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서 창작한 작품으로는 『삼강이 좋다』(1939), 『재회』(1940), 『국경의 밤』(1940), 『한국의 한 용사』(박동운, 1940), 『아리랑』(가극, 한유한, 1940) 등이 있으며 동북지역의 조선인 항일 유격대에서 창작한 작품으로는 연극 『혈해지창(血海之唱)』(까마귀, 1938)와 『밀림은 싸운다』(까마귀, 1938) 등이 있다.

상기한 작품 중의 상당수는 대본이 유실되어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당시 발표된 기사, 평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제의 식민치하에서 신음하는 한국인들의 고난과 항일투쟁과 독립 정신의 각성, 일제의 만행과 억압을 견디다 못해 탈출하여 항일무장에 가담한 인물과 사건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의 중요한 소재로는 한중 양국 군민들의 연합 투쟁과 그 업적에 대한 구가이다. 창작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한유한(韓悠韓), 김창만(金昌萬), 문정진, 김동운 등 투사-문인들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일무장 대원들의 집단창작물이고 전부 중국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무대에 올려졌다. 한 마디로 극 작품의 창작과 공연은 한중 양국 문인들의 공동주체성의 구축과정을 보여주는 문예 실천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한중 ‘문예 공동체’의 형성이다. 상호주체의 형성과 공동주체성의 구축에 있어서 ‘조선의용대’와 ‘한국청년전지공작대’의 연극 창작과 공연은

44) 안중근을 소재로 한 연극으로 『山河淚』(侯曜, 1931), 『亡國恨』(樸園) 등이 있고 윤봉길을 소재로 한 연극으로는 『尹奉吉』(夏佳琪, 1933.1.9.), 『尹奉吉』(陳適, 1933) 등이 있다.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1939년 3월 계림에서 상연한 연극『조선의 딸』과 가극『아리랑』⁴⁵⁾, 1940년 5월 서안에서 공연한 가극『아리랑』과 연극『국경의 밤』, 『한국의 한 용사』 등은 중국 관객들의 극찬을 받아 수차 공연되었다. 당시 계림과 서안 두 지역의 주요 간행물들에서는 대량의 기사를 통해 이 연극의 성공적인 공연을 보도하였고⁴⁶⁾ 사회 각계 인사들이 연이어 문장을 통해 공연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극작품들은 한민족의 민족적 각성과 항일 정신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공연과정에서 양국 문인, 예술가 나아가 두 민족의 융합의 정신적 가치를 실천하는 ‘교류 행동’⁴⁷⁾을 통한 공동주체성의 구축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계림에서 상연된 가극 <아리랑>은 1930년대의 어느 가을의 ‘아리랑 고개’를 배경으로 망국의 비극 속에서도 항전의 의지를 잃지 않은 한국 민중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서곡(序曲)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극 중의 ‘아리랑 고개’는 한중 양국의 변경인 백두산 아래의 고개로 중국으로 망명하는 한국인들이 반드시 건너게 되는 길목인데 여기에 찍힌 발자취들은 영원히 떠날 때의 것만 있고 돌아오는 때의 것은 없는 짝을 이루지 못하는 슬픔의 발자취들이다. 또한 이 아리랑 고개에는 조선의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뼈가 묻혀있는 비운의 고개이기도 하다.

농부: 연순아, 이곳을 ‘아리랑’이라고 부른다. 이 고개를 넘으면 조국의 마지막 땅을 넘어서게 된다. 아, 우리의 고향, 다시 만나자! 이 이별이 영원일까?

딸: 아버지! 우리는 왜 꼭 조국을 떠나야만 합니까? 아, 우리의 삶이란……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45) 1939년 3월 1일, 조선의용대는 계림에서 한국의 3·1운동 22주기 기념 대회를 거행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화극『조선의 딸』과 가극『아리랑』을 계림의 신화극원에서 삼일동안 공연하였다.

46) 『救亡日報』는 1939년 3월 3일에 『對於朝鮮義勇隊公演的感言』란 코너를 개설하여 艾青、舒群、楊太陽、林林的 감상문을 게재했다. 또한 『廣西日報』는 1939년 3월 1일 『朝鮮的女兒』公演特刊이란 제목의 특집을 간행하여 楊朔、力揚、風文 등의 글을 게재했으며 『西北文化日報』에서도 1940년 5월 『阿裏郎』公演 특집을 간행하여 建民、誠 등의 문장을 게재하였다.

47) 哈貝馬斯, 洪佩鬱, 藺菁譯, 『交往行動理論』(第1卷), 重慶出版社, 1994, 137쪽.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푸른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우리의 삶에는 파도만 친다⁴⁸⁾

『조선의 딸』 역시 계림의 ‘조선의용대’의 대원들이 창작하고 상연한 연극으로 조선의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한국 민중의 불굴의 투쟁 현장을 재현하였다. 극 중에서 중국에서 활동하다 조선으로 잠입한 항일유격대원들은 현지의 민중과 연합하여 일제의 군대와 경찰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들을 처단한다. 이극은 상연된 뒤 중국의 관객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평론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시인 리이양은 이극을 두고 “조선의 아들딸들이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영웅적인 희생을 그린 역사극”⁴⁹⁾이라고 평가했고 작가 양쉬우(楊朔)은 이극의 상연을 치하하고 나서 “일본제국주의의 통치하에서 유린당하는 인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 우리는 함락 지역의 정권을 회복하고, 동북지역의 정권을 회복해야 하며, 더욱 조선이 그들의 독립 정권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⁵⁰⁾고 주장했다.

서안에서 활동하던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서는 가극 『아리랑』(한유한 창작)을 창작하여 연속 10차례나 공연하여 서안시 군민들의 절찬을 받았다. 가극은 총 3장으로 되었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서곡, 제1장 2. “봄이 왔네”(춘녀독창) 3. 목가(목동독창) 4. 한국강산 3천리 승기가(합창), 제2장

48) (원문)

農夫：蓮順！這個地方叫做“阿裏郎”；過了這個山崗，就是走過了祖國最後的土地！啊！我的故鄉，再見吧！我離開你能夠是永遠的嗎？

女兒：爸爸！我們為什麼一定要離開祖國呢？唉！我們的生活……。(歎聲)

(唱)

阿裏郎，阿裏郎，阿啦裏啲！

我要走過阿裏郎山崗。

蔚藍的天空，繁星朗朗；

我們的生活啊，波瀾蕩蕩。

49) 力揚, 「熱誠的希望-祝“朝鮮的女兒”的演出」, 『廣西日報』『朝鮮的女兒』公演特刊, 1939年3月1日.

50) 楊朔, 「讀了“朝鮮的女兒”以後」, 『廣西日報』『朝鮮的女兒』公演特刊, 1939年3月1日.

5. 아리랑(이민들의 합창), 제3장 6. 한국행진곡(혁명군 합창) 7. 고향을 그리며 (목동과 촌녀 합창)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목동과 촌녀가 사는 한 농촌 마을의 아리랑고개에는 일장기가 나뭇기고 있다. 일찍 아리랑산 기슭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부부가 된 청춘남녀(목동과 촌녀)는 일제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여 두 청춘남녀는 무수한 이민들과 함께 ‘아리랑고개’를 넘어 중국으로 망명하여 ‘혁명군’에 가담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 바쳐 싸웠다. 수십 년이 지나 이들은 늙은 부부가 되었지만 항일전쟁의 최후 승리를 위해 또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서의 치열한 전투에 참가하여 결국 장렬하게 전사한다. 그들이 희생된 후, 그들의 고향의 ‘아리랑고개’에서는 드디어 국기(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작품은 이를 통해 항일투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기필코 위대한 승리를 맞이할 것임을 암시한다.

작품에서의 제2장에서 불리워지는 “아리랑민요”는 청중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작품의 <아리랑>이 상연된 뒤 한 평론가는 『한국청년』에 게재한 문장을 통해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전 한국의 3천만 군중들이 한결 같이 고통을 호소하는 불후의 민요이다. 제국주의의 억압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민족은 하루도 빛을 볼 수 없으며, 이 비참한 노랫소리는 하루도 멎지 않고 이 대지에 퍼져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 그것은 한국 민족 멸망의 종소리이며, 아울러 그것은 오히려 한국 민족 혁명의 돌격 나팔 소리로 될 것이다”⁵¹⁾라고 논평하였고 또 다른 중국 평론가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아리랑고개, 일제에 유린당한 이래로 많은 한국 청년들은 암담한 망국노 생활을 원하지 않고, 대량으로 압록강을 건너 동북에서 방랑하고 있다. 서로 통곡하며 헤어져야 했으니, 얼마나 처참하고 원망스러운 일인가! 누가 우리더러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라고 했던가! 누가 우리더러 자상하고 노쇠한 부모를 버리고 타향의 방랑자가 되라 했는가! 아리랑 산 앞에서는 40년 전부터

51) 雁, 「〈阿里郎〉观后感」, 『韩国青年』, 创刊号, 1940年 7月 15日.

지금까지 이런 참극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⁵²⁾라고 평가했다. 또한 작품 속에서의 목동과 촌녀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그들이 부른 “봄이 왔네”와 “목가”도 청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또한 제 3장의 “한국행진곡”은 당시 광복군 제2지대장으로 있는 이범석의 작사, 제2지대의 예술선전조 조장이었던 한유한의 작곡으로 되어있다. 작품은 세계약소민족은 일어나서 단합된 힘으로 적과 싸울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백두산이 우리를 부르고 광명과 자유가 두만강을 비추어주며 해방의 노래소리 조국의 곳곳에 울려 퍼져 승리는 곧바로 눈앞에 있다고 호소한다. 이처럼 가극은 목동과 촌녀가 부른 노래를 통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진지한 정서와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었고 “한국행진곡”을 통하여 승리의 신념으로 벽찬 독립투사들의 불굴의 정신세계를 노래하였다. 이에 중국의 한 평론가는 “한국 혁명 지사들이 조국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분투하는 정신은 일찍부터 국민들에게 존경 받았다. 항전 이래, 한국 청년들은 더욱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각 전장에 분포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미 중한 양국 국민들에게 두 나라는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존재임을 깊이 느끼게 했으며, 따라서 서로 암묵적으로 전투 우정을 증대시켰고, 이런 순결하고 진귀한 우정이 바로 서안 시민들이 이번 공연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된 것이다”⁵³⁾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양국 평론가들의 견해를 비교해 보면, 중국 관중들은 가극의 사상적 함의를 충분히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연극의 관람을 통해 한국 망명자들과 공감대를 확실히 형성했고, 따라서 공연은 “문화의 힘으로 광범위한 혁명운동을 일으켜 한국의 부흥을 촉진”⁵⁴⁾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문인들이 항전의 와중에 계림과 서안 등지에서 항일 주제의 연극을 창작, 공연한 직접적인 목적은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정신적인 위문을 전하는 한편 수익금을 모아 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⁵⁵⁾ 당시

52) 建民, 「滿懷興奮看“阿裏郎”」, 『韓國青年』 創刊號, 1940년 7월 15일, 24-25쪽.

53) 松江, 『阿裏郎』, 『韓國青年』 創刊號, 1940. 7. 15., 『工商日報』, 『西京日報』 轉載.

54) 羅月漢, 「我們的任務」, 『韓國青年』 創刊號, 1940년 7월 15일, 4쪽.

55) 가극 『阿裏郎』은 처음에는 “전방에서 싸우는 전사들에게 여름옷을 지원”하여, 이로써 “중국의 영웅적인 항전용사들에 대한 한국청년들의 경의와 성의를 표현하려고 했다.”(『韓國青年』 제1기),

계림에서는 ‘부상병 전우’ 위문 활동이 전개하고 있었는데 <조선의 딸>과 <아리랑>의 상연은 이 활동에 적극 참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조선의 딸>을 공연하기 전 『조선의용대통신』의 편집부 주임 이두산은 매일 밤 계림의 ‘신화극장(新華劇場)’에 가서 한중 양 민족의 해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의연금 모금을 호소하였다. 그는 강연을 통해 일제가 한국을 병탄한 죄행을 폭로하고, 한민족이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일본의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같은 마음으로 일떠서서 앞사람들의 뜻을 이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정신을 선전하였다.

한국 망명문인들이 창작한 작품이 상연될 때마다 계림에 있는 중국 각 기관, 단체의 대표들은 모두 관람하였다. 관객 중에는 일본의 반전 작가 가지와타루(鹿地亘)도 있었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 “회의장 곳곳에는 중한 연합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⁵⁶⁾라고 적었다. 서안에서 상연된 <아리랑>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중국 관중들의 열렬한 호응에 힘입어 열흘 연속 공연되었고 매번 만원을 이뤘다. 공연을 통한 항일투쟁 모금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청년』에는 “본 대(한국청년전지공작대—필자)는 전시 각계에서 여름 의복을 준비하여 전방 장병들을 위로하는 것에 호응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실험극장에서 10일간 공연을 진행하였다. 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은 필요한 지출을 제외하니 겨우 4천 원뿐이었다. 모금은 많이 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항전 용사들에 대한 경의는 지극히 높았다”⁵⁷⁾라고 적고 있다. 이로써 희곡 공연이 전선을 지원하는 목적을 초보적으로 달성하였고, 또한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중한연합을 실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한국 망명 문인들이 창작한 연극, 가극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상당한 실험성과 현대성을 보여주고 있는바 예술에 대한 양국 문인들의 동일한 추구를 체현하고 있다. <조선의 딸>은 주로 중국의 근대 연극을 수용

『朝鮮義勇隊通訊』의 편집실주임 李門山은 연극 『朝鮮의女兒』이 매번 공연을 하기 전에 무대에 나타나 민족해방문제에 대한 강연을 했다. 역시 모금을 위한 선전이도 했다. (田心, 『朝鮮의女兒和阿裏郎』, 『東方戰友』 6, 1939)

56) 田心, 『朝鮮의女兒和阿裏郎』, 『東方戰友』 6, 1939, 16쪽.

57) 『寫在前面』, 『韓國青年』 創刊號, 22쪽.

하여 대사, 극 구성, 무대장치 등에서 근대 연극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시인 아이칭은 “찬미해야 할 것은 <조선의 딸>이라는 극에 시종일관 관통되어 있는 것은 혁명정신이다. 이 혁명정신은 진부한 로맨스를 이야기의 중심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현실의 삶을 주제로 잡았다. 이는 끊임없는 억압에 맞선 합리적인 반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⁵⁸⁾라고 하면서 극본의 사실주의 기법을 높이 평가했다. 평론가 양태양(陽太陽)은 <조선의 딸>의 배우들의 연기가 극중 인물의 성격을 적절하게 그려냈다고 평가했고 “김창만(할아버지 역)이…… 일본 야마구치의 강요에 의해 그의 정원에서 가장 오래된 벗나무를 찍어내라고 했을 때 나타난 인물의 당황하고 실망하는 모습에서 체호브의 『앵두의 정원』 속 펍박에 의한 주인공의 가출의 비애와 벗나무가 찍혀 넘어지던 무거운 소리를 떠올리게 하였다”⁵⁹⁾라고 평가하였다. 『조선의 딸』을 관람하면서 체호브의 작품을 연상하였다는 평가 자체가 작품의 성공에 대한 긍정이다.

또한 한유한의 가극 <아리랑>의 특징은 전통 민요 ‘아리랑’에 항일투쟁의 서사를 접목하여 전통의 근대적 활용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또한 예술형식에서 한중 교류와 동서 예술의 융합 및 근대 가극예술의 형식적 혁신을 체현하고 있다. 현대 가극은 대부분 노래와 음악으로 극의 내용을 설명하고 표현한다. <아리랑>에 등장하는 민요 ‘아리랑’은 고향을 떠나는 이민자의 고난과 비애뿐만 아니라 고난을 넘어 반항하고 싸워야 하는 저항과 투쟁, 전쟁 승리의 기쁨과 희망 등을 복합적으로 상징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전통적인 민요와 전설을 현대적으로 혁신한 것이다. 또한 이 극의 주제 음악과 기타 음악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가극 속 인물의 형상이 아주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일찍 한 평론가는 가극의 줄거리와 음악, 세트의 조화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극의 연출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짜임새가 잘 들어맞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탄을 자아냈다. 특히 음악과 세트장의 조화는 서안(西安) 회극 계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었다”⁶⁰⁾라고 썼다. 중

58) 艾青, 「感言」, 『救亡日報』, 1939.3.3.

59) 陽太陽, 「感言」, 『救亡日報』, 1939.3.3.

국의 또 다른 평론가는 극의 현대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아리랑>이 서안에서 주목을 받게 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아리랑>은 새로운 형식의 가극이다. 오늘날 우리 전국 연극계가 신흥 가극을 창조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 실험은 매우 주목 할 만한 것”이고 “이 가극은 …… 동양적인 정서가 풍부해 …… 이런 형식은 탐구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⁶¹⁾라고 했다. 가극 <아리랑>의 작가 한유한⁶²⁾은 본명이 한형석(韓亨錫)인데 일찍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하여 상해의 신화예술학원(新華藝術學院)을 졸업한 음악가로 대표적인 재중 한국인 망명 예술가이다. 그는 극에서 감독, 음악 총지휘, 주요 배우 등 여러 직책을 겸했다. 그의 이력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바 한국 전통 음악의 소양과 중국에서 받은 근대 음악 교육은 <아리랑>을 비롯한 그의 작품들이 중국 음악계에서 “위대하다”⁶³⁾라는 평가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극 작품의 상연은 전반 과정에 거쳐 중국 측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바 한중 ‘문예 공동체’의 창조성을 체현함과 동시에 그 작품 자체에는 문화 혼종성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⁶⁴⁾ 일례로 <조선의 딸>은 ‘조선의용대’ 대원 김창만이 창작했지만 대사와 가사가 전부 중국어로 되어있고 남녀 주인공을 김창만과 김위(金煒)⁶⁵⁾가 맡고 나머지 배역은 국민군 육군 제5군 총정치부 국방예술사(國防藝術社)의 대원들인 나당생(羅塘生), 양박애(梁博愛), 장달제(張達諸) 등이 맡았다. 이밖에 이문검(李文劍), 채홍(蔡紅), 양태양(陽太陽), 서군(舒群) 등 당시 계림에 있던 중국 작가들도 연극의 공

60) 建民, 「滿懷興奮看“阿裏郎”」, 『韓國青年』 1, 1940, 25쪽.

61) 松江, 「阿裏郎」, 『韓國青年』 1, 1940, 28쪽, 『工商日報』, 『西京日報』轉載.

62) 韓悠韓(1910-1996), 본명은 한형석(韓亨錫)으로 여덟살에 부모를 따라 중국에 왔고 상해신화예술학원을 졸업. 전후로 中央戰時幹部訓練第四團教官, 韓國青年戰地工作隊藝術組長, 光復軍第二支隊藝術組長 등을 역임했다. 주요 작품으로 『阿裏郎』, 연극 『韓國一勇士』(韓東雲共編) 『韓國歌曲集』 및 가극창작으로 『國民軍歌』 『光復軍歌』 『鴨綠江進行曲』 등 다수가 있다.

63) 松江, 「阿裏郎」, 『韓國青年』創刊號, 1940.7.15., 『工商日報』, 『西京日報』轉載.

64) 아리랑가극 공연에는 第五陸軍政治部國防藝術社의 동지들이 참여했고 李文劍, 蔡紅, 陽太陽, 舒群 등 예술계인사들이 전면적인 지지, 성원을 주었다. (田心, 「朝鮮的女兒和阿裏郎」, 『東方戰友』 6기, 1939, 16-17쪽)

65) 김위(金煒)는 저명한 영화배우 김염(金焰)의 여동생이며 조선의용대의 유일한 여성 대원이다.

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서안에서 공연된 가극 <아리랑> 역시 남주인공은 창작자인 한유한이 직접 맡고 여주인공은 중국의 연극배우인 심승형(沈承珩)⁶⁶⁾이 맡았고 나머지 배우와 스텝 등은 서안 당시의 예술단체 단원들이 맡았다. 또 악대의 지휘에 부덕유(傅德友)와 고흥민(高興閔) 등 중국 음악가들이 맡았고 “반주를 하는 악대는 본 시의 유명 음악가 수십 명으로 구성”⁶⁷⁾되었는데 피아노, 바이올린, 색소폰, 기타, 얼후(二胡) 등 악기 역시 대부분 중국 음악인들이 맡았으며 코러스는 국민군 위생 총대 합창대 등이 맡았고 무대 감독, 프런트 관리, 무대장치, 효과, 조명 등 전체 스태프는 중국인들로 구성되었는바 당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극의 상연으로 “서안 음악계의 전례 없는 대단원을 이루”⁶⁸⁾게 되었다. 또한 극의 대사와 가사는 중국어로 되어있었지만 가요 ‘아리랑’만은 특별히 한국어 발음을 음역하여 불렀다. 한중 양국 가극 공연의 역사에서 양국의 전면적인 협력은 전례가 없는바 양국 ‘예술 공동체’의 지혜와 역량 그리고 예술의 탈경계 대화와 융합적 혁신의 산물이다. 한국의 콘텐츠와 중국 근대 예술 형식의 결합은 문화적 혼종성의 매력을 지닌 작품을 창조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양국 예술인들의 협력으로 가극 <아리랑>은 ‘항전예술의 영혼’⁶⁹⁾이라는 극찬을 받게 되었고 공동주체성에 기반한 한중연대를 구축하는 데 탁월한 공헌을 했다.

5. 결론

한국의 망명문학과 예술활동이 보여주는 주체성, 민족주체성, 공동주체성은 ‘소아(小我)’를 초월한 ‘대아(大我)’의 정신을 핵심적 가치로 하고 개체

66) 심승형(沈承珩, 1918~2002)는 중국의 연극 배우와 화가로 오빠 심천일(沈千逸)을 따라 항일운동에 투신하여 전선에서 스케치와 여러 폭의 대형 선전화를 창작하고 스케치 작품 전시를 등 활약을 했다.

67) 松江, 『阿裏郎』, 『韓國青年』創刊號, 1940, 28-29쪽, 『工商日報』, 『西京日報』轉載.

68) 松江, 위의 책, 28-29쪽.

69) 雁, 『“阿裏郎”觀後感』, 『韓國青年』1, 30쪽, 『西京日報』轉載.

생명의 자각을 기본 전제로 한다. 또한 주체성, 민족주체성과 상호주체성은 형성된 이후 하나로 통합되어 공동주체성의 구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 중국의 사회, 역사적 현장과 담론은 시종일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진보적 인사들이 한국 망명 문인들에 대한 인정과 지지는 양자가 주체성, 민족주체성, 공동주체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담보가 되었다. ‘신해혁명’과 ‘대혁명’ 시기 한국 망명 문인들과 중국혁명의 선각자들은 상호주체의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주체성의 구축을 도모하였지만 이때까지만 하여도 공통한 객체 —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양자의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여 개체주체성의 통합으로 이뤄져야 하는 공동주체성은 확고할 수가 없었다. ‘대혁명’ 시기에 있어 ‘국공합작(國共合作)’의 분열로 인해 한국의 망명 문인들과 중국 문인들의 상호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은 구축과 해체, 해체와 재구축에 직면하게 되어 사실상 저조기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1927년 4월 장개석의 구테타가 있는 후 북벌혁명에 참가했던 재중 한국 망명 지식자들은 국민혁명대오에서 이탈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남창봉기 혹은 광주봉기에 참가하게 되었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방황과 침묵으로 모대기였다. 하여 신해혁명 이후부터 구축되기 시작했던 중한공동주체성은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31년 “9.18”사변 이후 중국의 국부적인 항일투쟁의 전개되고 특히는 전면적 항일전쟁이 발발된 이후 ‘항일 구국, 전면 항전’의 기치 아래 한국의 재중 망명 문인들은 중국 혁명지사와 공동주체를 이뤄 중국의 항일전쟁에 적극 참가하였고 중한지사들의 공동의 이념과 이상, 공동의 목표와 분투의 일치성은 중한공동주체성 구축의 실질적 발전을 가져왔다. 하여 개체주체성은 민족주체성 내지 공동주체성으로 통합되고 발전되었고 나아가서 민족—집단 내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공동체 내부의 개체 생명 자각은 생명 창조⁷⁰⁾에까지 이르게 된다.

70) 개체의 “생명자각”은 주체성형성의 기본전제로 된다. “생명자각”이란 개체가 자아생명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로서 생명에 대한 자아인식과 존중, 자아생존과 발전의 능력 등을 가리킨다. 개체의 주체성은 군체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데 상호주체성은 개체주체성이 “생명창조”로 발전하는 필연적인 도경이기도 하다. “생명창조”는 개체의 주체성의 높은 단계를 말하는데 “자존, 자주”적인 상태에서 “자유, 자유”적인 상태에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데카르트는 일찍 “나는 사고한다. 고

이에 따라 ‘정치공동체’는 ‘문예 공동체’로 발전되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총적으로 재중 한국 망명 문학 중의 주체성, 민족주체성, 공동주체성의 구축 과정은 근대 한중 운명공동체의 문화 친화성, 융합성 및 공존발전성을 구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중 한국 망명문학의 주체성, 민족주체성과 공동주체성의 구축은 그의 반제·반봉건적 성격을 결정하였고, 동시에 한국 근대 항일문학 내지 한중 근대 문학 교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된다.

중국과 한국은 수천년간에 걸쳐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동아시아문명권내에서의 중한 공동체는 중국과 한국의 공동한 발전을 전제로 했고 유, 불, 도의 가치관을 상호 인지하는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관방과 민간교류를 병행했고 자원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다양하게 합작하는 등 우수한 역사전통을 확립했다. 근대에 와서도 근대가치의 재건과 주체성, 공동주체성의 구축, 다양한 주체들의 다원적인 교류 등을 이루어 왔다. 역사는 역사와 현실의 대화이다. 중한교류의 우수한 역사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중한운명공동체 구축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 강권에 맞서 중한 문인과 지사들이 구축한 공동주체성은 20세기 동아시아의 귀중한 정신적인 가치로서 이는 21세기 중한 양국의 인문 교류를 추진하고 중한 운명공동체를 구축함에 있어서 귀중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계시를 제공할 것이다.

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고 또한 “나는 사고한다, 고로 나는 창조한다.”라고 했던바 전자는 주체성의 전단계이고 후자는 후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다.

■ 참고문헌

1. 자료

『朝鮮民族戰線』, 朝鮮民族戰線社, 1938.

『朝鮮義勇隊通訊』, 朝鮮義勇隊刊行, 1939.

『東方戰友』(梧州-桂林), 東方戰友社, 1939.

『韓國青年』, 韓國青年社, 1939.

2. 단행본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 『近代史資料』總122號,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柳湜, 『朝鮮民族戰線』創刊號, 1938.

申圭植, 金東勳, 李先漢 等 編譯, 『申圭植詩文集』, 民族出版社, 1998 年.

金奎光, 『朝鮮民族反日革命總力量問題』, 『朝鮮民族戰線』제5-6기, 1938年.

艾青, 『悼詞-為朝鮮獨立同盟追悼殉難的朝鮮烈士們而作』, 『解放日報』, 1942年.

建民, 『滿懷興奮看“阿裏郎”』, 『韓國青年』創刊號, 1940.

李鬪山, 『洪流中的文藝家』, 『東方戰友』31, 1941年.

_____, 『1940年進行曲』, 『東方戰友』13, 1941年.

_____, 『放歌』, 『中國詩壇』6, 1940年.

力揚, 『熱誠的希望-祝“朝鮮的女兒”的演出』, 『廣西日報』, 『朝鮮的女兒』公演特刊, 1939年.

羅月漢, 『我們的任務』, 『韓國青年』, 創刊號, 1940.

馬義, 『戰鬥中的朝鮮義勇隊』, 『國訊』253-254號 合刊, 1940.

雁, 『〈阿裏郎〉观后感』, 『韓國青年』創刊號, 1940年.

田心, 『朝鮮的女兒和阿裏郎』, 『東方戰友』6, 1939.

陽太陽, 『感言』, 『救亡日報』, 1939.

신채호, 『개성판 단재 신채호 전집』(상, 중, 하),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영설출판사, 1972.

이원규, 『김산 평전』, 실천문학사, 2006.

조성환, 『도산 안창호 전집 2』(서한2),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2000.

피터 차일즈 · 패트리 윌리엄스 지음, 김문환 옮김,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弗莱德·R·多迈尔, 万俊人译『主体性的黄昏』, 广西师范大学出版社, 2013 年.

郭湛, 『主体性哲学——人的存在及其意义(修订版)』,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1.

哈贝马斯, 洪佩郁, 葡菁译, 『交往行动理论 (第一卷) ——行动的合理性与社会合理化』, 重庆出版社, 1994.

金柄珉, 『申采浩文學遺稿選集』, 延邊大學出版部, 1994.

3. 논문

劉霞, 『申奎植의 中國體驗和文學創作研究』, 博士學位論文, 山東大學, 2020.

Cross-boundary Narrative and the Construction of Common-subjectivity

Centered on the Literary Creation and Artistic Activities of Korean Exiled
Writers in China

Shi, Jimei* · Jin, Bingmin**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cross-boundary narratives of Korean exile literati in China showed various characteristics of subjectivity, among which the construction of common-subjectivity experienced the historical process of construction,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The awareness of individual life and national subjectivity have been the essential prerequisites for the Korean exile literati in China, while the China's discourse environment and historical scene have always played a vital part as the function of uncertainty. Because the Chinese and Korean patriots faced a common historical mission of anti-imperialism and anti-feudalism. Korean exile literati in China gradually showed the qualities of interactive subjects and the construction of common subjectivity has gone through the period of the Xinhai Revolution and the Revolution, which is a stage of exploration and initial formation, accumulating various historical experiences with many twists and turns. More over, during China's anti-Japanese war, Korean exile literati became mainly manifested in the participation in the war of resistance in China as a common subject, and

* Ph.D. student of Korean Modern Literature, Librarian, Department of Reference Literature on Korean Studies, Yanbian University, author

**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Department of Korean Linguistics and Literature, Yanbia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further showed various characteristics as a literary and artistic community from the political community. In terms of literary activities, it is manifested in the joint writing of the same theme and the creation and joint performance of dramatic literature.

The common subjectivity of Korean exile literature in China presents the culture affinity, interaction and integration, co-existence and mutual development of the Sino-Korean community of a shared destiny.

Key words : Korea, Exile Literature, Cross-boundary Narrative, China's Discourse Environment, Common subjectivity